

아버지의 어린이집 등·하원 참여 및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 : 직장어린이집과 비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김 균 량(인하대 박사과정)

이 완 정(인하대 교수)

오 소 라(인하대 학부과정)

I. 문제제기

근래 직장어린이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모가 자신의 직업과 가정생활, 특히 자녀양육을 효율적으로 양립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등원하는 영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비 직장어린이집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직접 등·하원 시키지만 경험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비 직장어린이집보다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 지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버지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일상에 익숙해지고, 자녀의 흥미나 요구에 민감하게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에 자주 참여하는 아버지의 경우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미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 현황에 대한 김은설의 연구결과(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버지의 48.5% 어머니의 82.5%가 주중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아버지의 72.6% 어머니의 90.6%가 주말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주중과 주말 모두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간 양육분담영역의 경우, 아버지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아내 외출 시 돌보기’ 였고, 가장 저조한 부분은 ‘밥 먹이고’, ‘옷 입히는’ 등 가장 기본적인 돌보기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란혜(2001),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 집단의 아버지가 비 취업모 집단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 참여 빈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중인 부모의 출퇴근시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출근시간대는 늦고 퇴근시간대는 빠르며, 퇴근시간의 규칙성이

높고, 주말근무도 아버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맞벌이 부부 중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로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위해 조정한 결과로 사료된다. 기업의 자녀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에서 '출퇴근 시차제'를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히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이정원, 김문정, 2012).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규칙적인 등·하원 참여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에 많이 참여할 경우 아버지는 규칙적인 퇴근시간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가정에서의 빠른 귀가를 통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도 더욱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비 직장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지도 참여 빈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고, 양육 혼란감을 덜 느끼며, 자녀를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러워 하는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김은설·정영혜, 2012). 또한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는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용이, 2007),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배우자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박소영, 2012).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 및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수준, 직업 및 하루일과, 부모 자녀관계, 여가 및 사회참여 등을 포함한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요구도, 활성화 방안,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직장어린이집과 비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 중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와 모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연령 등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부부를 대상으로 함께 살펴보거나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주된 역할로 인식되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참여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비 직장어린이집에서의 아버지 등·하원참여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등·하원 참여빈도가 높으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참여도 높은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빈도, 직장 어린이집 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가 달라지는지,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키는 참여 빈도는 어떠한가?
 [1-1]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빈도는 직장 어린이집과 비 직장어린이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1-2]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빈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빈도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서로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 및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등·하원시켜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 표집된 어린이집의 만3세~만5세 유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아버지용 116부와 어머니용 124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어린이집 유형과 부모의 분포는 다음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직장 어린이집	비 직장어린이집	전체
아버지	46(19.0)	70(29.0)	116(48.0)
어머니	50(21.0)	74(31.0)	124(52.0)
전체	96(40.0)	144(60.0)	250(100.0)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명(%)

구분	항목	직장 어린이집		비 직장어린이집		전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0(0)	0(0)	2(0.025)	5(0.063)	2(1.5)	5(3.8)
	30-35세	2(0.04)	15(0.3)	10(0.127)	30(0.38)	12(9.2)	45(4.6)
	36-40세	23(0.46)	25(0.5)	29(0.367)	24(0.304)	52(40.0)	49(37.7)
	41세 이상	21(0.42)	10(0.2)	29(0.367)	15(0.19)	50(38.5)	25(19.2)
	무응답	4(0.08)	0(0)	9(0.114)	5(0.063)	14(10.8)	6(4.6)
최종학력	고졸이하	2(0.04)	5(0.1)	25(0.353)	33(0.418)	27(20.8)	38(29.2)
	전문대	5(0.1)	6(0.12)	16(0.203)	24(0.304)	21(16.2)	30(23.1)
	4년제 졸	39(0.78)	39(0.78)	29(0.367)	17(0.215)	68(52.3)	56(43.1)
	무응답	4(0.08)	0(0)	9(0.114)	5(0.063)	14(10.8)	6(4.6)
취업여부	전일제취업	43(0.86)	37(0.74)	65(0.823)	30(0.038)	108(83.1)	67(51.5)
	시간제취업	1(0.02)	2(0.04)	2(0.025)	11(0.139)	3(2.3)	13(10.0)
	미취업	2(0.04)	11(0.22)	1(0.013)	31(0.392)	3(2.3)	42(32.3)
	무응답	4(0.08)	0(0)	11(0.139)	7(0.089)	16(12.3)	8(6.2)
근무시간	8시간 미만	3(0.06)	5(0.1)	3(0.038)	11(0.139)	6(4.6)	16(12.3)
	8-9시간 미만	22(0.44)	26(0.52)	20(0.253)	11(0.139)	42(32.3)	37(28.5)
	9-10시간 미만	14(0.28)	8(0.16)	12(0.152)	6(0.076)	26(20.0)	14(10.8)
	10시간 이상	5(0.1)	0(0)	33(0.417)	9(0.113)	38(29.2)	9(6.8)
	무응답	6(0.12)	11(0.22)	11(0.139)	42(0.532)	18(13.8)	54(41.5)
총 수입	299만원 이하	6(0.12)	12(0.24)	24(0.30)	32(0.41)	30(23.4)	44(33.8)
	300-399만원	11(0.22)	12(0.24)	17(0.215)	17(0.215)	28(21.5)	29(22.3)
	400만원 이상	29(0.58)	24(0.52)	28(0.35)	23(0.29)	57(43.9)	49(37.8)
	무응답	4(0.08)	0(0)	10(0.127)	7(0.089)	15(11.5)	8(6.2)

2. 연구도구

1) 자녀 등·하원참여 빈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자녀의 등·하원에 참여하는 정도를 “등원과 귀가지도 역할을 주로 누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묻고, 응답은 ‘항상 내가 한다’ ‘항상 나와 배우자가 함께 한다’ ‘주로 내가 하고 가끔 배우자가 도와준다’ ‘나와 배우자가 비슷한 정도로 한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가끔 내가 도와준다’ ‘항상 배우자가 한다’ ‘기타(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중 아버지의 응답이 전반 네 문항에 체크되었을 경우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빈도가 절반 이상인 집단, 후반 세 문항에 체크되었을 경우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빈도가 절반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양육참여도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는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참여도 질문지는 총 26문항으로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었다.

<표 3> 양육참여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
발달적 지지	11	1~11	.88
자녀 돌보기	9	12~20	.87
함께하는 활동	6	21~26	.87

3)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는 Hayes와 Stinnett(1971), 임정빈(1998), 최동성(1991)등의 연구를 기초로 유지영(199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 내용은 총 6개로 결혼생활만족도, 건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부모 자녀관계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생활만족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9월부터 9월 23일까지 직장어린이집과 비 직장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원장님과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각 가정의 부모님께 배부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질문지를 받아 회수를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dow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경향을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치로 살펴보았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버지 등·하위 참여빈도가 직장어린이집과 비 직장어린이집 간에, 취업모 집단과 비 취업모 집단 간에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등·하위 참여빈도, 직장어린이집 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검정으로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참여정도는 직장 어린이집과 비 직장어린이집의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직장어린이집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등·하원 지도에 절반 이상 참여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빈도보다 높는데 비해, 비 직장어린이집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등·하원 지도에 절반 이하 참여한다는 비율이 기대빈도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 28.860, p < .000$). 이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지도 참여빈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4>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빈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빈도(N=118)		X^2
	절반이상인 집단 (가 집단)	절반미만인 집단 (나 집단)	
직장어린이집	30(16.4)	16(29.6)	28.860***
비 직장어린이집	12(25.6)	60(46.4)	
어머니 취업	23(22.8)	12(12.2)	.016
어머니 비취업	7(7.2)	4(3.8)	

***p < .001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지도에 참여하는 빈도가 절반 이상인 집단과 절반 미만인 집단 차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에서 자녀양육참여도, 가정생활만족도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등·하원지도에 절반 이상 참여하는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아버지 집단 간에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참여 빈도에 따른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

독립변인		가 집단 (n=41)	나 집단 (n=75)	t값
아 버 지	발달적 지지	3.36	3.25	.95
	양육 참여도			
	자녀 돌보기	3.48	3.32	1.29
	함께하는 활동	3.70	3.45	1.68
	총 양육참여도	3.51	3.34	1.47
	가정생활만족도	3.63	3.56	.61
어 머 니	발달적 지지	3.61	3.72	-1.08
	양육 참여도			
	자녀 돌보기	4.01	4.15	-1.32
	함께하는 활동	3.92	3.80	1.05
	총 양육참여도	3.85	3.89	-.48
	가정생활만족도	3.57	3.61	-.27

또한 직장 어린이집과 비 직장어린이집 부모의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해본 결과, 직장어린이집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비 직장어린이집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52, p < .05$).

<표 6> 직장어린이집 여부에 따른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

독립변인			직장어린이집	비직장어린이집	t값
아버지	양육 참여도	발달적 지지	3.28	3.29	-.69
		자녀 돌보기	3.43	3.34	.67
		함께하는 활동	3.62	3.48	.91
		총 양육참여도	3.44	3.37	.64
	가정생활만족도		3.76	3.47	2.52*
어머니	양육 참여도	발달적 지지	3.64	3.70	-.61
		자녀 돌보기	4.06	4.13	-.76
		함께하는 활동	3.83	3.82	.09
		총 양육참여도	3.84	3.88	-.49
	가정생활만족도		3.65	3.59	.44

* $p < .05$

다음으로 어머니 취업 집단과 어머니 비 취업 집단의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가 취업한 집단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집단의 아버지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참여 중 자녀에 대한 발달적 지지($t = 2.31, p < .05$), 함께하는 활동($t = 2.05, p < .05$), 총 양육참여도($t = 2.33, p < .05$)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참여도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

독립변인			어머니 취업 집단 (n=80)	어머니 비취업 집단 (n=42)	t값
아버지	양육 참여도	발달적 지지	3.40	3.12	-2.31*
		자녀 돌보기	3.46	3.22	-1.81
		함께하는 활동	3.67	3.33	-2.05*
		총 양육참여도	3.51	3.23	-2.33*
	가정생활만족도		3.62	3.49	-.99
어머니	양육 참여도	발달적 지지	3.69	3.64	-.47
		자녀 돌보기	4.07	4.17	.99
		함께하는 활동	3.80	3.89	.83
		총 양육참여도	3.85	3.90	.55
	가정생활만족도		3.68	3.46	-1.48

* $p < .05$

마지막으로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참여빈도, 자신과 배우자의 자녀양육참여도,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 취업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우자인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였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7%였다.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인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본인 스스로의 자녀양육참여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6%였다.

이에 비해 어머니 비 취업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우자인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본인 스스로의 자녀양육참여도였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였다.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인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였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7%였다.

<표 8>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어머니 취업 집단				어머니 비취업 집단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의 등·하원참여빈도		.16	.12	-.23	-.14	-.08	-.06	.04	.03
배우자의 양육참여도		-.26	-.19	.06	.04	.36	.24	.18	.19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		.45	.58***	.76	.59***	.36	.37*	.46	.45*
본인의 양육참여도		.22	.12	.40	.25*	.30	.33*	.22	.14
R ² (Adj-R ²)		.41(.37)		.40(.36)		.54(.49)		.44(.37)	
F		11.46***		11.11***		10.38***		6.87***	

주) 아버지 등·하원참여빈도: 절반미만=0, 절반이상=1.

* p<.05 ** p<.01 ***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지도에 많이 참여한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와 등·하원을 함께 하는 일과가 실제로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관련 변인에 따라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등·하원 시켜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교집단으로 삼아 양 집단 부모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아버지는 비 직장어린이집 아버지에 비해 자녀를 직접 등·하원 시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지도 참여빈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은설·도남희 2012)와 비슷한 것이다. 본 결과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아버지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직장에 다닐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등·하원지도에 절반 이상 참여하는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아버지 집단 간에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에는 많이 참여하나 아직 이러한 참여가 가정에서의 실제 양육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이 주중 주말 상관없이 월등히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기본적인 돌봄이 저조하였다는 연구결과(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와 일관된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상대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생활 공평성과 정서적 공평성,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부부 서로에게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기연, 2000)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어머니 취업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어머니 비 취업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상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자신의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어도 자신의 요구나 흥미에 의해 자녀양육에 스스로 참여할수록 총체적인 아버지 자신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직장 어린이집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실제 양육참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는 자녀의 등·하원참여 빈도보다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집단의 아버지일 경우 아내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어도 자신의 요구에 의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천과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뚜렷한 특징인 아버지의 자녀 등·하원 참여빈도와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 만족도.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란혜(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1.**
- 김은설(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 정영혜(2012).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 · 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혜신(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남희 · 이정원 · 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 김세현 · 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 손수민(2012). 영아가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유지영(1999).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 이진숙(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 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용이(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 박소영(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05-524.**

아버지의 어린이집 등·하원 참여 및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 : 직장어린이집과 비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김 혜 라(대덕대 조교수)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외에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까지 포괄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요즘, 본 논문은 직장어린이집과 비직장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아버지의 어린이집 등·하원 참여 정도와 자녀양육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토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기존의 아버지 자녀양육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연구들과는 차별되도록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가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비율에 관심을 두었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규칙적인 등·하원 참여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아버지가 자녀의 등·하원에 많이 참여할 경우 아버지의 규칙적인 퇴근시간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는 고려해볼만한 변인이라 사료된다. 연구결과는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비율은 높았으나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비율이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등·하원에 참여하더라도 실질적인 자녀 돌봄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아버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비직장어린이집 아버지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아버지 관련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및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도와 관련이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가정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상대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각자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상대 배우자의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는 것은 부부 중심으로 구성된 현대사회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 취업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어머니 비취업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게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등원 여부나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도에 따른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초기 의도가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많은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장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등·하원 참여, 가정에서의 양육참여, 가정생활만족도 등이 분석되어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성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어머니 직장어린이집인지 아버지 직장어린이집인지에 따른 변인들의 분석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직장어린이집의 확산 및 운영에 실질적인 제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